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음 윤5월 10일) 제18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지난 30일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폐막식이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가운데 남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공연을 끝낸 뒤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역사의 발자취로

“우리는 하나”... 남북화합 재연출

WTF-ITF 시범단 폐막 공연으로 관중들의 큰 호응 얻어 한국, 대회 종합우승 차지... 다음 대회, 맨체스터에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폐막식이 지난 30일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부 2위는 러시아, 여자부 터키, 남자부 3위는 이란, 여자부는 세르비아가 차지했다. 한국의 이이름(여), 나이지리아의 이수프 압둘(남) 선수가 최우수 선수상, 한국의 문희진 코치 외 1명이 최우수 코치상을 수상했으며 참가상은 그리스와 지부티가 받아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도종환 문화부장관, 조경원 WTF 총재, 북한의 장웅 IOC위원, 송하진 조직위원장(전북도지사), 이연택 공동위원장, 황정수 부위원장(무주군수)을

비롯한 선수단과 관람객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건반과 드럼, 가야금, 장고가 어우러진 안숙선 명창의 슈퍼 세션 공연으로 시작된 폐막행사는 ITF 국제태권도연맹(12명)의 틀, 겨루기, 격파 등 단체 시범과 태권도 동작에 춤사위를 더한 공연,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 격파, 태권댄스를 선보인 WTF 세계태권도연맹 단원(60여명)들의 시범이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공연 후 두 연맹 단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품을 주고받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무르익은 남북화합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연출해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어진 혼성단체전 시범은 스페인과

미국 선수들이 출전해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선전을 펼치며(스페인 43 : 24 미국)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혼성단체전은 태권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이 올림픽 종목군에 추가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다양한 체급의 남녀 4명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펼치고 누적된 점수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다. 한편, 지난 29일 입국해 특별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폐막식에 참석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와 넘치는 에너지, 스포츠 맨심으로 넘치던 2017 무주대회를 보며 다시 한 번 태권도를 경외하게 됐다”며 “183개국의 태권도인들이 함께 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임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2107 무주대회가 세계 태권도인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2017 무주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증진시키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대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ITF 방문을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연맹기를 다음 개최지인 영국 맨체스터 조직위원회로 넘기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으며 송하진 조직위원장과 이연택 공동위원장의 폐회선언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막을 내렸다. 식후에는 대동놀이와 불꽃놀이가 경기장 주변 호수에서 펼쳐져 7일 간의 열전을 마친 각국의 선수들에게 한바탕 흥과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했다. 한편, 다음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2019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김진성 기자·무주=전문기자

매일 INDEX
14면 - 모로코 유학생, 일일 전주시장되다

군산조선소가동 중단에 지역민들 ‘허탈’ ‘그래도 희망의 끈은 계속’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한 지 7년 만에 가동을 멈춰 지역민들이 허탈함에 빠져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물량 감소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군산조선소를 가동 중단 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본격적인 철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에 재가동 시점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중단을 결정했다”며 “결국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군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130만급 도크와 1,650급 폴리락 크레인 등을 갖춘 초대형 조선소로 지난 2010년 3월31일 준공식을 하고 선박 건조에 돌입했다.

시 “끈기 발휘해 지킬 것 대우조선해양 수주 현대상선 VLCC 10척 중 일부 군산에 재배정해야”

1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 조선소는 연간 18만급 28척의 건조능력을 갖추고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군산시는 지난 30일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기대 속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공식 견해를 내놨다. 시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86개 사내의 협력업체 가운데 51개 업체가 폐업(59.3%)하고 35개 업체가 남아 있으며 근로자는 5,250명에서 3,858명이 실적(73.4%)해 1,392명만 남은 상태다. 가동 중단에 따라 이 수치는 더 늘어갈 것이고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경기침체, 지역업의 붕괴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과 선박편드 건조 물량까지 지원해 지역 차별이자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시는 “새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에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군산조선소 존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를 수차례 방문해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했고 밤도민 서명운동 전개,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 국회 토론회, 1인 릴레이 시위, 범도민 결의대회,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 구축,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이 국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력의 도화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조기 발주, 선박편드 2조6,000억원 중 남아 있는 1조6,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해운선사를 몰색하고 선박건조 물량 군산조선소로 배정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군산시 투자지원과 채영석 과장은 “지난 1년여간 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막기 위해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도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했다”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를 발휘해 군산조선소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수주한 폴라리스쉬핑 선사의 VLCC(광물운반선) 3척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한 현대상선의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가운데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재배정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산=장 현 기자

문 대통령, 트럼프에 “강한 힘 기반 외교에 전적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된 환영만찬에서 “과거에는 북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한미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뉴시스

평창, 문화를 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평창문화올림픽이란?

- IOC, Cultural Olympiad Guide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합니다.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올림픽 관련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페이스북
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